

창세기강해 14

아담아 네가 어디있느냐 (창 3:8~10)

하용조 목사/ 1998년 6월 28일

시편 139편 1~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 갈찌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찌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찌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리이다”

사람의 착각 중에서 가장 큰 착각은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피해서 살 수 없습니다.

시편 139편은 다윗이 일생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얻은 체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고 하나님의 눈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 속에 가진 생각은 하나님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앉고 서는 것을 아시고 나의 생각과 눕는 것까지도 알고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도, 마음도, 행위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보고 계시고 내 속 마음의 동기까지도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내가 하늘 끝까지 피했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땅 끝까지 가도 그 곳에 하나님이 계셨고 새벽날개를 펴고 바다 끝까지 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피한 장소에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피하거나 속일 수 없습니다.

희생하시며 찾아오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담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 하나님과의 만남은 감격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울렁거리고 좋았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먹지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은 순간부터 모든 것이 변하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죄가 없으면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거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도망가고 거부하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죄와 어두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날이 서늘할 때’라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만났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만나십니다. 또 ‘동산 안에 거니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공간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큐티를 통해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하나님과 아담은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인간을 위해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월해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모두 같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동시에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제한함으로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이처럼 참사랑은 자기 희생이며 제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정기적으로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여러분의 시간과 공간 안에 오십니다.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 오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교제의 시작입니다. 말씀은 복의 시작이며 감격의 시작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의사소통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우리의 사정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한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인간은 배신할 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인간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그분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담과 하와는 뱀의 꼬임에 빠져서 사탄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대신에 사탄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먹지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선악과에 손을 댔다는 것은 악에 접촉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신실하게 계속 지키셨습니다. 서늘한 때에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이 그날, 그 시간, 그 공간에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사랑의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인간의 방법으로 지켰지만...

하나님은 오셔서 ‘아담아, 내가 왔어’하고 부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올 때는 언제나 인간의 방법으로 오십니다. 만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간에게 왔다면 인간이 따라갈 수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입을 것을,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갈렸을 때 너희는 나를 돌보았다’라고 말하면서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을 때 그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 대답하지 않는 것은 병이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라고 대답할 때 하나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 복은 계속될 것입니다.

8절 후반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 나무 사이에 숨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떳떳하다면 숨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당당해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하고 숨게 만듭니다.

교회를 피할 때 여러분은 병든 것입니다. 사람만나기를 거부할 때 이미 우울증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교회와 성경을 거부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거부하고 있을 때 이미 그 사람은 문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의 얼굴을 피하게 합니다. 부부가 갑자기 서로 얼굴보기를 피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보는 눈빛이 달라집니다. 숨지 마십시오. 얼굴을 피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가 없을 때는 모든 것이 투명하고, 떳떳하고, 자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죄를 지으면 모든 것이 불투명하고 뒤끝이 흐려집니다. 그것은 어떤 부분이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먹지 말아야 했던 그 나무를 보는 순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유혹이 들어왔습니다. 유혹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유혹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유혹을 거절하지 못하는 것이 잘못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유혹을 거절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인 ‘보는 것’과 ‘먹는 것’으로 유혹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느낀 것은 수치와 부끄러움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자기도 먹고 남편도 먹게 했습니다. 사탄은 아담을 유혹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와만 유혹하면 아담은 자연히 끌려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본 것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었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얻은 소득은 부끄러움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부끄러움을 볼 필요도 없었고 느낄 필요도 없었습니다. 죄는 수치감을 심어줍니다. 갑자기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이 부끄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눈을 뜰 필요가 없습니다. 선과 하나님에 대해서만 눈을 뜨면 되는 것입니다. 사탄에 대해 눈을 뜰 필요가 없었는데 접촉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엉겁결에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빨리 하나님께로 오십시오. 여러분이 해결하려 하면 문제는 더욱 악화됩니다. 고치면 고칠수록, 손대면 손덜수록 더 나빠집니다. 하나의 거짓말은 다른 거짓말을 낳게 됩니다. 거짓말 하나를 막기 위해서는 두 개의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무화과나무는 결국 그들에게 더 많은 부끄러움과 고통과 목마름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나무사이로 도망갔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죄를 낳습니다.

여러분에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있다면 감추거나 막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더 나빠집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와 치유를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행위로 수치 가려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만 우리의 수치는 가려지고 부끄러움은 가려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피하거나 숨지 마십시오.

성경을 읽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설교를 듣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께로 나오면 수치가 벗겨지고 저주와 심판은 축복으로 변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배신하여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늘 끝까지, 바다 끝까지, 땅 끝까지 가서 우리를 찾아내고야 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찾기 시작합니다. ‘아담아, 아담아’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시간에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와’를 부르지 않았습디다.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와를 찾을 텐데 하나님은 아담을 찾고 있습니다. 부부는 한 몸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부부는 두 개체가 아닙니다. 여자가 한 실수에 대한 책임은 남자가 져야 합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우리는 여자가 잘못하면 이혼합니다. 실수하면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남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자가 실수했어도 그 책임을 남자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부부는 한 몸입니다. 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남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아 네가 무슨 짓을 했느냐’고 묻지 않으시고 ‘네가 어디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인생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상실한 것은 자신의 현주소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부모에게서 왔다고 하면 허무주의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허무하고 외롭고 고독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원하는 목적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 죽을 때가 되면 ‘나는 무엇 하다 여기까지 왔는가?’라고 의미없는 탄식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의 현주소를 잃고 ‘도망하는 사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아십니까? 그리고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죽음으로 모든 것은 끝이 납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이 없는 사람은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암에 걸리면, 사업이 망하면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망했다고 인생이 망한 것도, 죽을 병에 걸렸다고 인생이 패배한 것도 아닙니다. 원하는 목표에 이르지 못했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병이 들어도 인생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죽은 후에 가야 할 세계를 알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이라고 말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즐거워집니다. 자기 인생이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는 질문은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네 인생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은 창세기 16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후처인 하갈이 사라의 핍박을 받고 광야로 쫓겨난 기막힌 신세가 되었을 때 천사가 나타나 ‘가로되 사래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고 묻습니다. 하갈이 대답하기를 ‘나의 여주인 사래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도망’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인생은 끝없는 도망입니다. 범행을 저지는 사람은 지명수배를 받아 도망을 다닙니다. 죄를 지으면 도망하게 됩니다. 자식이 죄를 지으면 부모로부터 도망하게 됩니다. 남편이 죄를 지으면 아내로부터 도망하게 됩니다.

또 누군가 나에게 심한 고통을 줄 때 도망합니다. 정부가 악한 정치를 하면 국민이 도망가고 사장이 잘못되면 직원이 도망합니다. 남편이 어렵게 하면 부인은 같이 살아도 도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도망하는 사회’입니다.

‘너는 어디에 있느냐?’는 말 속에는 세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번째, ‘너는 왜 나를 피하느냐’라는 말입니다. 두번째,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이고 세번째, 하나님이 아담의 문제를 돕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도망하여 숨어 있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마, 너의 수치를 감싸주마’라는 뜻이 이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은 자신이 중요했습니다. 자기를 강조하는 사람은 항상 비참하지만 하나님을 강조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10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두려움’입니다. 고통은 견디면 되지만 더 무서운 것이 두려움입니다. 병은 고통스럽지만 병으로 인해 생기는 공포와 두려움이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과 좌절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해결하면 되지만 두려움과 공포는 여러분을 지옥과 같이 느끼게 합니다. 아담이 이 공포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벗었으므로...’벗었다는 수치감은 두려움을 주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죄를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빛 가운데로 나가는 사람은 어둠에서 해방되지만 빛 가운데 나가서도 웅크리고 등을 돌리는 사람은 여전히 어둠을 가지게 됩니다.

교회에 왔다고 모두 빛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고 감싸고 있는 사람의 자리는 어둠의 자리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두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줄 것입니다. 시편 66편 19절을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을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인의 살길은 오직 회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수치와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을 모두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친구였지만 어느 날 그들은 도망자의 길에 서게 된 것입니다. 도망자가 갈 곳은 하나 밖에 없습니다. 자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자수하면 죄없는 것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가 없는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탕자가 집을 나가는 순간 그 아버지는 자식을 용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은 벌을 많이 주고 용서를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처음부터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고민을 만드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빨리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죄를 예수 안에서 용서하셨습니다.

수치와 두려움을 개의치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두움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어두움을 몰아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어두움을 몰아내는 유일한 비결은 빛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어두움과 악한 영이 떠나고, 악한 습관과 무거운 짐이 떠나고, 여러분을 두렵게하고 절망하게 하고 병들게 했던 모든 것이 순식간에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를 때 죄때문이 아니라 다른 의미로 부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믿음의 조상을 만들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를 부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야 할 사명을 주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성전에서 자고 있던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고, 엘리야를 부르셨고,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신약성경을 보면 삭개오와 베드로, 요한과 안드레, 나다나엘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잡으려가던 사울을 다메섹도상에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밧모섬의 요한이 들었습니다.

바울과 사무엘을 부르시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도 부르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죄를 지은 아담을 부르던 그 부르심이 아니라 복과 사명을 주기 위한 것이기를 축원합니다.

*** 출처 : 온누리신문**